

## 세스나 리쿠르팅 그룹 '한국 인턴 연결해 드려요'

10여개 대학과 협의 한인 미국 기업에 소개



(세스나 리쿠르팅의 김성민 대표가 인턴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공급 서비스 기업 세스나 리쿠르팅 그룹(대표 김성민)이 한국의 인턴 인력을 소개한다.

가주, 뉴욕 등 미전역에 위치한 대형 유통, 의류 패션, 전기전자, IT, 자동차, 전문직 등 한인 및 미국 업체들과 인턴을 연결해주는 것.

세스나의 준 임 부장은 “미국내 5개 지점망과 한국 본사와 합동으로 인턴 공급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한국 인턴 지원자와 미국내 한인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나아가 한인 경제가 부흥되는 상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이어 “인턴을 활용한다면 경기침체에 따른 감원 등의 조치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회사에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업무 처리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는 미주 한인 업체들의 경영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스나는 현재 한양대, 인하대, 한성대, 숙명여대 등 10여개 대학과 인턴프로그램에 관한 협의중에 있다. 4월 1000여명의 지원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선발된 인재를 빠르면 오는 8월쯤 한인 업체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세스나에 따르면 인턴 채용 비용은 무료다. 패션 또는 웹디자인, 회계, 영업, 매장·생산·재고·시스템 관리, 전기전자, 물류 등 각 전공별 인턴을 확보해 회사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게 세스나의 주장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

여기에 현지 면접, 비자발급, 적응교육, 입국, 주거지 소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복잡한 절차를 해결해준다는게 세스나의 설명이다.

인턴들은 전공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로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기업 근무, 인턴 경험을 발판으로 취직하려는 열정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1년이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 (201) 567-8886, [www.cesnagroup.com](http://www.cesnagroup.com)

2009.03.09 (월) 중앙일보 이재희 기자